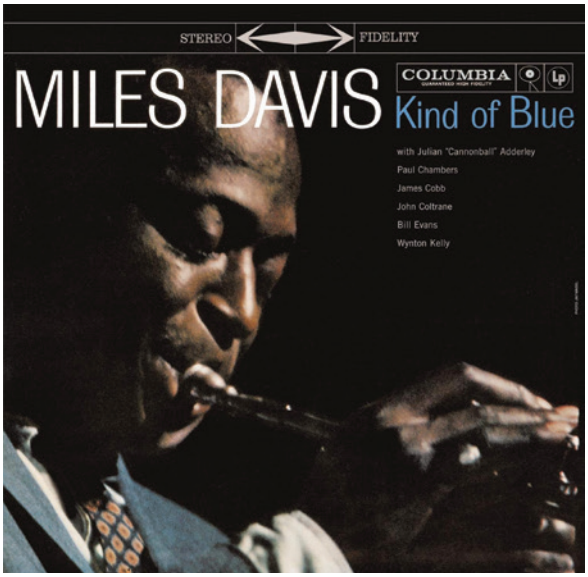
재즈를 듣다 12
선법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국내에서 재즈 음반 구하기가 쉽지 않던 1990년대 초, 당시 나는 학생 신분으로 어렵게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아 한 장 두 장 사야 하는 형편이었다. 좋은 음반을 골라야겠는데 지식이 부족했다. 연주자 이름, 곡명, 레이블 모든 것이 낯설어 난감해하다, 우선 재즈 역사에 관한 책을 한 권 사 밑줄 그어가며 열심히 읽은 뒤 다시 매장을 찾아가니 비로소 연주자들 이름이 조금은 친숙해져 뭘 사야 할지 감이 오기 시작했다. 세운상가 근처 도매점을 찾아 들어갔다가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의 카세트 테잎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책에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써 놓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구입한 음반은 '카인드 오브 블루(Kind of Blue)'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번 듣고 곧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뻔했다. 짜증 나는 이상한 트럼펫 소리, 드르륵, 드르륵 하고 기관총 쏘아대는 것처럼 밖에 안 들리는 색소폰 소리 같은 것들뿐. 다음번 살 때는 잘 조준(?)해서 들을만한 걸 사야겠다고 제삼 제사 다짐했고, 이후에도 몇 번 후진 음반을 사고야 마는 쓰라린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재즈 연주에 공감하고 알아갔다.

그러던 1년여 세월이 흐른 뒤, 외출하기 전 워크맨으로 들을 음악 챙기다 구석에 잠자고 있던 이 음반이 새삼 눈에 띄었다. 먼지 쌓여 있던 그것을 모처럼 꺼내 든 것은 순전히 사 놓고 듣지 않으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전철로 향하는 길 위에서 첫 번째 곡 '그래서 뭐?(= So what?)'를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어? 이거 뜻밖에 괜찮네?'란 생각을 하였고, 이어 두 번째 곡 '프레디의 파티(= Freddie freeloader)'가 흘러나올 땐 전철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온몸으로 벼락을 맞은 듯 감전이 왔다. 한 마디로 음악 듣다 기절할 지경으로 확 간 것이다. 보통 낯선 음악을 처음 들을 땐 시큰둥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날 좋아지는 날이 오곤 한다. 이 경우는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음악 듣다 그런 충격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때때로 음악은 접신된 무당의 그것과 유사하게 열광과 도취의 세계로 감상자를 인도하곤 한다. 마약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과 달리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체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기 전에 꼭 한 번 맛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카인드 오브 블루'는 마일즈 데이비스가 '쿨의 탄생' 발표 2년 후인 1959년에 재즈 사에 남긴 큰 업적이다. 'Kind of blue'를 굳이 한국말로 직역하면 '파란색 같은' 정도겠으나, 블루스(Blues)의 말장난이 아닐까도 싶다. 이 음반을 '선법 재즈(= Modal Jazz)'의 효시라고 평한다. 선법(Mode)은 하드밥이 매너리즘에 빠지려는 시점에서 마일즈가 찾은 대안이었다. 오늘날에도 처음 재즈를 배우는 연주자들은 즉흥 연주법을 크게 코드(Code)를 이용하는 방식과 스케일(Scale)을 이용하는 방식을 각각 익힌 뒤 자신만의 개성을 가미하는 식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이처럼 중요한 스케일을 이용한 즉흥 연주법을 사실상 마일즈가 처음 개척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선법의 기원은 매우 오래됐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 기록에만 나오는 것이고 그레고리오 성가가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제일 오래된 선법 음악일 것이다. 오선보가 나오기 전 '네우마'라고 하는 기보법으로 남겨진 기록이 있다. 모든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등 4개의 정격과 여기에서 파생된 4개의 변격 선법 중 하나로 돼 있다. '카인드 오브 블루' 역시 이 교회 선법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한다.

교회 선법은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미묘한 이론으로 돼 있어 이 이상의 설명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선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 스케일에 대한 상대적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생소한 교회 선법 대신 대다수가 친숙하게 여기는 또 다른 선법 구조인 민요 5음계를 기본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려 한다. 5음계는 전 세계 대다수 민요의 기본이다.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온 '궁상 각 치 우'는 다장조의 경우 '도 레 미 솔 라'에 대응하는 음계라고 보면 된다. 선법에선 으뜸음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즉 5음계에는 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5개의 기본 음계가 있다.

이 중 가장 친숙한 음계는 '도' 음을 중심으로 한 '도 선법'과 '솔' 음을 중심으로 한 '솔 선법', 그리고 단조에 가까운 '라 선법' 등이 있다. '도 선법' 중 친숙한 곡을 꼽자면 영화 '소오강호' 주제곡인 '창해일성소(滄海一聲笑)'가 먼저 떠오른다. 신중현의 '미인'에 나오는 기타 전주 역시 같은 선법을 썼다. 하지만 정말 친숙한 5음계는 '솔 라 도 레 미'로 구성된 '솔 선법'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돈 맥클린이 노래한 '빈센트(Vincent)', 영화 '모 베터 블루스(Mo' Better Blues)' 주제곡, 무엇보다 '아리랑'이 솔 선법이다. 여담으로 일본에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중 4번째 음인 파(= 욘)와 7번째 음인 시(= 나나)를 뺀(= 누끼) 음계라고 하여 '요나누끼 음계'라고 부른다. 이것을 단 3도 아래로 내린 '라 시 도 미 파'를 요나누끼 단음계라고 한다. 다름 아닌 엔까의 기본 음계다. 일본에서 1931년 발표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酒は涙か溜息か)', 이듬해에 나온 '그림자를 갈망하고(= 影を慕いて)',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 불린 '황성옛터', '타향살이' 등이 이 음계를 사용한 초기 곡들이다.

이처럼 같은 계이름을 갖고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뉘앙스에 변화를 주는 것이 본래 선법 이론이다. 마일즈가 도입한 모드 재즈도 기본 개념은 동일해 보인다. 다만

마일즈 데이비스의 '이정표'

이것을 한두 코드 위에 덧입혀 선법 특유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다양한 형태로 즉흥 연주가 가능하도록 변모시켰다는 점이 큰 업적이랄 수 있을 듯하다. 그 결과 선법 재즈에는 흔한 '재즈 스탠다드'에서 볼 수 있는 주제 선율이 없고 대신 단지 몇 개의 기본음만이 제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날 갑자기 '카인드 오브 블루'가 툭하고 나온 건 아니다. 그에 앞서 조짐이 있었다. 1958년 발표한 '이정표(= Milestones)'라는 음반 중 4번째 곡인 '마일즈(Miles)'가 선법을 도입했다. 이 음반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켜 '첫 번째 끝내주는 5중주단(= First Great Quintet)'이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편곡자 길 에반스와의 협력으로 탄생한 놀라운 음반인 '스페인 스케치(= Sketches of Spain)' 중 '솔레아(Solea)'라는 곡이다.

훗날 선법 재즈가 널리 퍼지는 데는 이들 음반에 참여한 연주자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우선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Bill Evans)를 꼽을 수 있다. 보통 그를 '재즈 피아노의 쇼팽'이라고 부르지만, 막상 연주를 들어보면 화려한 쇼팽보다는 담백하고 섬세하단 점에서 '재즈 피아노의 슈베르트'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한다. '카인드 오브 블루'에서 '블루 인 그린(Blue in Green)'이란 곡을 작곡했다. 이 곡은 그의 대표 음반 중 하나인 '재즈의 초상(= Portrait in Jazz)'에도 수록돼 있다. 또 다른 명반 '데비를 위한 왈츠(Waltz for Debby)' 역시 선법 재즈의 영향을 받은 음반이다.

빌 에반스의 '재즈의 초상'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은 선법 재즈를 이용한 즉흥 연주를 극한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1960년 발표한 '거인의 발자국(= Giant Steps)'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한다. 마일즈 퀸텟의 베이스 연주자이기도 한 폴 챔버스(Paul Chambers)가 함께 참여했다. 3번째 곡인 '미스터 피씨(= Mr. PC)'의 'PC'가 폴 챔버스를 가리킨다는 설이 있다. 1961년 발표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 My Favorite Things)', 1964년 작 '초승달(= Crescent)' 역시 선법 재즈의 영향을 보여준 음반이다. 한동안 오넷 콜맨(Ornette Coleman)의 영향으로 이른바 '프리 재즈'에 빠져 매우 재미없는 연주를 들려줬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때 최후의 명반으로서 손색이 없는 '최고의 사랑(= A Love Supreme)'에서 다시 선법 재즈로 돌아왔다.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을 마일즈 데이비스 제자라고까지 한다면 과장일 순 있겠으나 약관의 나이인 그를 마일즈 5중주단의 피아노 주자로 처음 발탁했다는 점에서 다방면으로 마일즈의 영향을 받은, 다음 세대 연주자라 할 수 있을 듯하다. 당연히 선법 재즈와 관련한 음반도 발표했다. 1962년 작 '이륙(= Takin' Off)', 1964년 작 '가장 높은 하늘 섬(= Empyrean Isles)'이 그것이다. 주제 선율이 없다 보니 선법 재즈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우선 '이륙'을 들어볼 것을 권한다. 첫 곡인 '수박 장수(= Watermelon Man)'부터 흥겹기 그지없다.

존 콜트레인 '거인의 발자국'

허비 행콕의 '이륙'

팻 매스니의 '출구'

팻 메스니(Pat Metheny)는 한국 재즈 팬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이다. 기타야말로 스케일에 기반한 즉흥 연주에 가장 최적화된 악기일 것이다. 동일한 운지법으로 플랫만 이동하면 코드를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선지 팻 메스니 연주에선 스케일에 의한 즉흥 연주를 꽤 자주 들어볼 수 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대표작이랄 수 있는 1982년 발표한 '출구(= Offramp)'의 첫 곡인 '나와 함께 떠날까?(Are you going with me?)'가 그렇다. 공연 음반인 1983년 작 '여행(= Travels)'에서의 연주도 좋다.

선법은 재즈에서뿐 아니라 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록의 중심 악기 역시 기타이다 보니 당연하다 하겠다. 그중 가장 극적인 사례로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4집 수록곡, '록앤롤(Rock'n Roll)'을 꼽을 수 있을 듯하다. 평소 신나는 하드록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선법 재즈를 염두에 두고 다시 들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리라고 본다.

그림 출처 : amazon.com, amazon.co.jp

마일즈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마일즈 데이비스의 '이정표'

빌 에반스의 '재즈의 초상'

빌 에반스의 '데비를 위한 왈츠'

허비 행콕의 '이륙'

존 콜트레인의 '최고의 사랑'

콘 콜트레인의 '거인의 발자국'

팻 메스니의 '출구'